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소티리오스 대주교는 오랜 기간 서울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에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었다.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참석한 시민증 수여식에서 고건 당시 서울 시장으로부터 명예 시민증과 기념 메달을 받고 있다.

제4차 세계 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마리아 대순교자
(제4조 • 조과 부활 복음 5)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성 교부들 찬양송 85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디도 3,8~15 봉독서538
- 복음경 : 마태오 5,14~19 163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소중한 보화

나 약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것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참된 하느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1고린토 4,6) 이런 깨달음의 빛을 사도 바울로는 아주 소중한 보화라고 한 것입니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기쁨에 대하여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우리 주님의 ‘대사제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끝이 납니다. “아직 세상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13)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쁨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란 것이 ‘기쁨의 소식’을 의미하며, 복음서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도 넘게 언급되고 있지 않나요!

물론, 복음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쓰는 이 단어의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기쁨은,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이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데, 이 기쁨이 세상에서 의미하는 기쁨과 공존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기쁨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격 없이 우리의 자극만 충족시키는 감각적 기쁨이 아닌 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기쁨에 영적인 성격이 없다면, 그것은 현상적인 기쁨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진정한 기쁨을 해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놀이, 노래, 자연의 아름다움, 사랑의 황홀경, 지식, 창조적 활동, 예술, 아름다움, 학문, 사람들과의 교제, 우정, 축복받은 결혼 생활,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 등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기쁨은 배제되거나 금지되거나 경시되지 않은 채 하느님의 뜻 안에 자리하고 있

습니다. “만물이 다 우리를 위하는 것”(1고린토 3,21 참조)이라고 사도 바울로가 강조했듯이 말입니다.

다음과 같은 의문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같이 제시해보겠습니다.

1) 교회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기 사항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답: 농부가 작은 나무 주변에 지지대를 세울 때, 이는 그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나무가 꺾이거나 쓰러지지 않고 잘 버텨서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탱해주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를 생각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답: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슬퍼하지만, 하느님께서 주시는 용서에 대해서는 기뻐합니다. 이러한 ‘슬픔 어린 기쁨’은 우울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3) 오락이나 놀이가 허용됩니까?

답: 물론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어떤 놀이를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돼지들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뒹굴대면서 온몸을 더럽히고 주변도 엉망으로 만드는 놀이가 있는가 하면, 갈매기들이 찬란한 바다의 하얀 거품에 빠져들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자아내는 놀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속삭일 필요조차도 없는...

아타나시아 봉사자



한 원로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면 왜 서로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지릅니까?”

잠시 생각하던 제자 중의 하나가, “우리가 평정심을 잃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원로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상대에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화가 나면 왜 사람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하였지만 어떤 것도 원로를 만족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윽고 원로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화가 나면, 그들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를 메우기 위해서, 달리 말하면 서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들은 소리를 질러야만 합니다. 화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들은 그 멀어진 거리 사이에 두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더 크

게 소리를 질러야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원로는 물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향해 큰 소리를 지르지 않으며, 부드럽고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원로는 계속 말하였습니다.

“타인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말하지 않고 그저 작게 속삭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사랑으로 인해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마침내 그들은 속삭일 필요조차도 없게 되지요... 그저 서로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며,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마음이 서로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곧, 서로의 마음이 멀어지게 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여러분 마음과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다시금 상대방에게로 되돌아가려고 해도 그 길을 영영 찾을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주간 예배 안내

* 7월 20일(수) 오전 9시
엘리야 예언자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서울 성당 세례성사

지난 7월 10일(일), 권 록사
나 교우의 세례성사가 로마 신
부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세례 축하합니다.

소 식

40일 추도 예배 안내

오는 7월 23일(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
당에서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40일 추도식이 성찬예배에
이어서 거행됩니다. 모두 오셔서 고인을 함께 추모하고 영혼
의 안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석 여부를 각 성당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인원 파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귀국

그리스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을 방문했던 암브로시
오스 대주교께서 12일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대주교는 바르
톨로메오스 총대주교께 고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생애 마지
막 순간과 장례식에 대해 직접 전했습니다. 총대주교께서는
고인이 지난 47년간 한국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것에 깊은 감
사를 전하며 고인의 영혼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축복을 전하셨습니다.

수도원 블로그

가평 구세주 변모 수도원 블로그에는 故 소티리오스 대주
교의 행적이 담긴 사진이 연재되고 있으며, 고인의 강론과 가르
침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교회 영성과 신앙생활에
관한 다양한 자료가 많이 있으니, 자주 오셔서 풍성한 영적
양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http://orthodoxmonasterykorea.org> 또는 '구세주 변모
수도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름 수련회 개최 안내

7월 25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시작될 예정
입니다. 수련회의 중요한 목적은 하느님과 교
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정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친교를 이루며, 형
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
도록 배우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더불어,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초중등부 기간에는

영어 프로그램과 다양한 재미있는 활동이, 고
등부 및 신데즈모스 기간에는 영적 친교, 토론,
공동체 놀이와 활동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방 봉사자는 계속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장소 :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일정 : ▶ 7/25(월)-29(금)

초등부, 중등부 (참가비 12만원)

▶ 7/29(금)-8/1(월)

고등부, 신데즈모스 (참가비 9만원)